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평안북도 함흥시 흥남로 100-1 흥남교회 2층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연근

'98 하반기 성경연구원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와 성도로

9월 5일부터 15-17주간

5부예배 1주년

작년 8월 24일 첫예배

작년 8월 24일 시작된 5부 예배는 매 주 1주년을 맞았다.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 1, 2부가 주축이 되어 모이는 5부 예배는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되어 현재는 매주 약 1천 5백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고등부 예배찬양대 및 신설된 뱀뱀찬양대와 더불어 합창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충현의 미래를 키우는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요청된다.

2교구 총력기도회

8월 25일 저녁 6시 30분

2교구는 IMF 및 수해 등이 진정할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판단하고 총력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교구는 8월 25일(화)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 교구식구를 전제해 진정할 회개를 통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새롭게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교구장(김의철 장로) 및 지역장,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 말씀에 준비하고 있다.

평신도 단기선교사

훈련과정

9월 5일 개강

선교위원회는 본교단 총회 선교훈련원과 협의 및 당회의 심의를 거쳐 평신도 단기선교사 훈련과정(LMTC)을 개설하기로 하고 9월 5일 개강예배를 드린다.

강의는 기초과정 및 정규과정 1, 2로 진행된다. 그리고 특별과정으로써 총 3회에 걸친 일박 수련회 및 1회 이상의 단기선교훈련이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MTP 공동체 훈련 및 해외훈련을 인정받게 되며(단, 3개월 정규과정을 받아야 함) 3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한 후 전임선교사로 지원할 경우에는 공동체 훈련 및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과정만 거치면 된다. 물론 단기선교사의 경우에는 선교 현지에서 현지 선교사나 현지인들을 통한 적절한 사역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위원회는 이 과정이 단기선교사 7천명 파송의 비전을 위해 적절한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과정의 과목, 강의 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로).

•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17:00-21:00

(1) 비전과정

성경적 선교신학(신, 구약)
선교사 유적지 답사/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
타인 사담 내 시대 / 최후의 개척자
타문화권 복음 증거 / 복음을 위해 준비된 세상
과업을 완성하라 / 전략적인 교회선교행동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 미전도 종족과 단기선교

(2) 언어과정

영어 / 스페인어 / 방글라데시어 / 중국어

김성관 목사 위임 1년

젊은이와 선교, 말씀의 비전으로

김성관 위임목사가 본 교회에 부임하여 위임직예배를 가진 지 일년이 지났다. 작년 8월 24일에 가진 위임식을 통해 김 목사는 예수님과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종이 될 것을 온 성도 앞에서 약속했다. 이후로 김 목사는 예수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젊은이의 부흥과 선교 등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또 그 실천을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김 목사는 신설된 5부예배가 살아나야 충현의 미래가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젊은이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5부예배는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화성회 및 거룩하고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 힘써왔다.

충현의 성도들은 김성관 위임목사가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증거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여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엮여지는 일에 이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단기선교팀

격려 및 간담회

1. 일시: 1998. 8. 27(목) 18:30
2. 장소: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
3. 대상: 단기선교팀 전원

정기감사

1. 감사 대상 기간: 1998. 1. 1-7. 31
2. 감사 대상 부서: 각 위원회 및 산하 각 부서와 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1998. 9월 중 매주 월요일 9:00-16:00
4. 감사 장소: 선교관 404호 감사위원회실
5. 준비 서류: 1) 당회기간의 시산표(부서장 확인) 2)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원장, 보조장)와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6. 감사 기관: 감사위원회

(3) 교양강습부

- 교육시간: 주일반 15:00-16:50
- 교과목: 신약개론(이홍성 목사) 구약개론(김필수 목사) 선교의 이론과 실제(이승수 목사) 반목회(정현민 목사) 신약개론 1, 2(김민식 목사) 교회론(조철수 목사) 종말론과 이단(정혜성 목사) 성경과 구원신학(김희수 목사) 교회음악(조문환 목사) 전도의 이론과 실제(차병준 목사) 예배론(박경환 목사) 새신자 관리와 양육(김재철 목사) 교사론(이종대 목사) 학생발달이론(전형훈 목사) 교회사(김동성 목사) 공과교수론(정갑진 목사) 교양실습(2주간)

(4)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 교과목: 찬양대원의 자격(조문환 목사) 교회 일꾼의 자격(정갑진 목사) 초급시창(김윤경 집사) 합창호흡 및 발성(정하영 집사) 영적 예배와 찬양(박경환 목사) 성경에 나타난 찬양(김필수 목사) 고급시창(장기범 집사) 고급시창(이진우 집사) 합창 확립(김철룡 집사) 은사와 봉사(김병대 목사) 찬양대원의 영성(조철수 목사)

노회 남전대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

동서울교회 남전대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8월 26일 수요일 2부예배에서 본 교회에서 드려진다. 남전대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1998년도 하반기 성경연구원 강의가 9월 5일 일제히 시작된다.

후반기 성경연구원 강의에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주간성경공부, 교양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외에도 직분자 양육반이 추가되었다. 주간성경공부는 교인이면 누구나 수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는 타교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양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는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및 현직 교사와 찬양대원 중 이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직분자 양육반은 전반기에 이미 시작된 권사, 구역장, 권찰반 교육 및 남성구역장반 공부, 그리고 안수집사반 공부 등이 성경연구원 과목에 공식 포함된 것이다.

각 과정별 과목별 강사, 그리고 강의 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1) 주간 성경공부

- 크로스웨이반: 크로스웨이1(화, 오전 10시, 조문환 목사) 크로스웨이2(화, 오후 7시 30분, 차병준 목사) 크로스웨이1(수, 오후 2시, 김희수 목사) 크로스웨이2(수, 오후 2시, 김동성 목사) 크로스웨이3(수, 오후 2시, 조철수 목사) 크로스웨이4(수, 오후 2시, 전형준 목사)
- 성경 각권반: 창세기(수, 오후 2시, 정현민 목사) 예루살렘(수, 오후 2시, 권상현 목사) 사사기(수, 오후 2시, 정갑진 목사) 골로새서(수, 오후 2시, 김병대 목사) 로마서(목, 오전 10시, 김동호 목사) 데살로니가서(목, 오전 11시 20분, 김필수 목사)

(2) 직분자 양육반

- 권사: 구역장 - 권찰반 수, 수요일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외 각 교구 목사
- 남성구역장반 수, 수요일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외 교계 집회 목사
- 안수집사반 월, 새벽기도회 후, 김희수 목사



영어예배 10주년

오늘(8월 23일)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영어예배부는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사신전시회, 친교의 시간을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심

(사 27:12, 13)

“성령을 잃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여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다 모아 주십니다.”

이 사아 27장 7-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불살라 버릴 마른 가지처럼 꺾으시겠다고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황무하고 적막하게 된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시겠다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디에서 모으시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12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되 북쪽 아수르에서부터 남쪽 애굽까지의 전 지역에서 모으십니다. ‘창일하는 하수’는 유브라테스강을 뜻하는데 곧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찾으시되 창일한 유브라테스강가에 있는 북방 아수르에서부터 남방 애굽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능히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아 돌보실 때에 가장 무서운 아수르에 있는 남은 자도 돌보시고, 가장 악독한 애굽 나라에 있는 자기의 백성도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막을까 만능이 마실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만것 그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리시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자를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십니다. 영혼의 주소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마귀의 그늘 밑인지가 문제입니다.

2.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방법이 어떠한가

(1) 열매이 모으신다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열매이 모으시리라”(12절)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익은 과실을 따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이삭 주위 모으시기를 ‘열매이’, 즉 하나님께 가장 조소시킨 태도로 모으십니다. 따라서 남은 자란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동시켜서 모두 익게 한 것입니다.

(2) 나뭇을 붙여 모으신다

“... 큰 나뭇을 올려 불리니...”(13절)
큰 나뭇을 올려 붙여 남은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니다. ‘올려 붙다’는 뜻은 특별하게 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기 위하여 특수한 나뭇을 붙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에서 하나하나 모아 놓으십니다.

3.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자리에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남은 자를 세상 끝까지 간수하고 보호하십니다.

셋째로, 남은 자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넷째로, 남은 자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다섯째로, 남은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주십니다.

4. 남은 자란 주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13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란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즉 남은 자란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을 인하여 원수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악마가 미워합니다. 불의한 세력과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들이 미워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더라면 그들의 사람을 잃었겠는데 몸은 아수르로 애굽에서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생활이 악한 자들과 다르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당하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간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의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소하며 믿음의 열매를 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수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간수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멸의 용덩이에 빠졌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곳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금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13절)

쫓겨난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을 남은 자가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 저를 혼자 두시면 바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 모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형식만 갖춘 축경이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축경이라는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축경이라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도 되었습니까. 장로도 되었습니까. 목사도 되었습니까. 이렇게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속 열매가 없으므로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두 등을 두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충언교회의 성도 여러분, 신자의 모양만 갖춘 것을 또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간수하시고 열매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3)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알곡이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죄와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하러 굶어서부터 예수를 믿나? 죽을 적에 다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많은 좋은 어려움에 축경으로 건들건들 지내다가 추수할 때에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심일조를 바칠 때는 심일조 바치고, 주일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만이 남은 자,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남은 자가 돌아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13절)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수르로 애굽으로 쫓겨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비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돌아온 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까’ 하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죄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6.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원수가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열매가 없는 축경이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언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수도 되지 말고 형식만 갖춘 축경이 신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알곡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알곡 신자는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두 실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땅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성공자가 되고, 땅에서 위태로운 자 같으나 영화로 되고, 환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열매이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부족을 알고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여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다 모아 주십니다. ■



김 석 관 목사

내게 있는 것이 족하오니

(창세기 33:9-11)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의 것을 따르든지 선택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삶과 영생을 위하여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예를 거절하는 에서의 자족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진 사람만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흠족하게 여기는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가진 것에 대하여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형제간인 이 두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들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도 더욱 탐욕스럽게 마릅니다. 하지만 이 두 형제는 풍족한 중에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제 라반과 헤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가로써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축복하여 에서를 피해야 했고 결코 고향을 떠나 삼촌인 라반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서는 사백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고 순간 야곱은 겁에 질렸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많은 예를 에서에 보내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였습니다. 물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맞아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자 에서는 꽤 많은 예를 자신에게 보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겸손히 대답합니다. “내 주께는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8절). 여기서 에서를 향한 야곱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의 위치를 낮추고 형 에서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이에 에서는 대답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주라”(9절).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족 뒤에 숨은 교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 풍족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서 역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신물을 사냥하였었다. 실제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는 많은 처자를 거느렸으며 사백인을 데리고 야곱을 마하나임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에서는 성공했으며 평정한 권세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서의 자족은 한없는 탐욕으로 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선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의 다른 면에는 사악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삶을 모두 자신이 주관하였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서 자신과 또 그가 일구어낸 부귀를 자랑하게 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업신여길 수 있는 처지에 서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로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야곱처럼 뜻하지 않은 선의의 삶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원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날 세상의 복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에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진정한 자족의 은총을 입은 자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옵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서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옵나이다”(10절). 야곱은 경외감을 가지고 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 사략을 다녔습니다. 그는 다름을 얻기 위해 십년을 일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칠년을 일했습니다. 그런 그가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32:11).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습니다(32:26). 그리고 영적인 삶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길을 찾았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빈 손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단 물마를 때에는 셀 수 없는 미망의 복도 누리게 된 것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복을 구했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있는 예를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리라”(33:11). 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위협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극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1-23). 놀라운 일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신한 일을 하라”(골 4:28). 이는 야곱의 삶을 비추어 주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지만 시도 바울은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에서를 만난 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출만한 은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축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심으로 축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라 자 길에 행동하며 악한 일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미다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이 치우칠 뿐이라”(시 37:8-11)

사탄의 속임수에 주의해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절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요 6:68) 여러분은 자족한 생활을 하시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면 “예, 내가 가진 것이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으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의 끝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복으로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기만적인 속임수는 너무나 매혹적이고 사탄의 권에서 볼 때, 결과는 안타깝게도 매우 성공적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족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버티었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원의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아직도 세상의 부귀를 찾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들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변함없이 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이도 만족하신다면 악한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할 진리가 필요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행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성심적인 정치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의 것을 따르든지 선택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해 받고 핍박을 당했으나 결국은 순교의 사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삶과 영생을 위하여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

김성관 목사 위임 1년을 맞이하며



감사뿐입니다

위임목사 김성관

주님의 섭리 하심 안에서 충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먼저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 가끔 언급했던 것처럼 목회 경험과 소망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게 된 것 자체가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더 힘차게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탄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매순간을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지난 일년 동안 오직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중점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년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한 자

리에 모여 드리는 5부 예배와 이들이 중심이 되어 훌륭하게 치러낸 단기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때마다 이어지는 뜨거운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의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깨끗한 헌금과 헌신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수해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헌신하는가를 역력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의 날로 새로워지는 영성과 하나된 마음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주요 부분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께 돌려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역 초기에 있었던 상호간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인내하시고 감개 주신 장로님들의 격려와 헌신 덕분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치는 충헌의 5대 목표를 더욱 힘차게 이루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충헌교회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계속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다 많이 위로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시고 성도님들은 물질로 교역자님들을 돕지 말고 기도로 도와드릴 것을 부탁하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도를 소중히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셨다. 지금이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노릇을 사명을 강조하시며 젊은이에게 복음 전함의 중요함을 느끼고 5부예배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은 우리 교회의 장래를 밝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위임목사님이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전한 목사님이 되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목사님 모시기 전에 그처럼 기도했는데 교회가 안정을 찾고 편해지니 기도를 쉬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탄의 공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 모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이 변했다고 본다. 우리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시기와 위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교역자들과 더불어 복음 사역에 힘쓰면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복 되고 이 사회는 밝아지리라. 김성관 목사님의 부임 1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도의 화목을 이루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교회의 내일을 함께 기대해보자.

‘충헌교회 = 하나님의 장막, 충헌의 성도 =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망하며

장기범

(집사, 임파수엘찬양대 지휘자)

조용한 개혁의 1년

하대선

(장로, 행정위원장)

지난 1년간 김성관 목사님이 걸 어오신 발자취를 행정적 측면에서 뒤돌아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조용한 개혁”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없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교회의 상근부서가 2월 2주 12과에서 7개과로 축소되었고, 사무장로의 상근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교역자에 대한 총회의 관행이 사라지고, 사제가 헌신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명헌금의 양성화로 음성적 지원금의 폐단이 근절되는 등, 제정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행정의 투명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편 교회의 직원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따뜻한 영적 지도를 통하여 복자에서부터 마음가짐과 근무자세가 이르기까지 모두 새로워졌으며, 성실과 친절함 봉사로 온 교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많았이 내실을 다져 놓으신 행정적 기반은, 우리 충헌교회가 2천년대를 향하여 독수리같이 날개처럼 비할 수 있는 튼튼한 터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만을 외치시는 주님의 종

이소현

(권사)

매가 악하다로 교회까지 세속화가 되어 종교 다원화주의와 혼합주의 등으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가만히 들어와 미혹하고 있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굴복시켜 양무리들을 낙심케 하고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되



는 이때에 선한 목자로 오신 위임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정화시키신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음에도 충명이 어두워져 지혜, 인격, 문화, 풍속 등으로 다져진 묵은 발을 기경하도록 복음만을 외치신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도록 새벽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은혜를 받는다.

두 번의 파도를 겪고 공석 중인 위임목사로 인해 소망 중에 인내하며 눈물샘이 마르도록 기도한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학목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이동명

(안수집사)

1년 전까지의 위임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풀죽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충헌의 성도들은 하나 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위임목사님, 주님의 사랑받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사님을 세워주시라고 참으로 열심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성관 목사님이 위임목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회 경력의 짧다 하여 열려배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으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집회 첫단에 오르셔서 친히 인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신앙과 백미에 다짐으로 들려져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고 중한 세례 요한의 강한 어귀를 느끼게 했다. 예수님은 진박라는 말씀이 더욱 밝고 확실히 비치며 순식간에 변해지는 것 같았다.

새벽기도회 장소가 좁아 갈릴리움에서 본당으로 옮기고,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전도서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사회가 혼저문제로 신문지상으로 으레 내릴 때 충헌교회 교역자는 심방사 사래미를 절대 금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김성관 목사님을 충헌강단에 보내 주시고, 어느새 위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초인적으로 거대한 지킴이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고 헌신 목사님, 미래의 비전을 5부 예배를 통해 실현시키셨으며 무엇보다도 찬양의 바른 의미를 정립해 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 의하여 인도되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둔 것처럼, 이제 충헌교회는 김성관 목사님을 선두로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제2장을 펼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배우며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의 이름과 건물은 많지만, 본질을 상실한 교회(空會)가 더욱 많아지는 것만 같다. 복음은 큰 대 열이 건물만 고고 소내자 대신 찬양과 이 드나드는 유림의 전통있는 교회들 모습에서보다 하나님이라는 초월함을 목격하게 된다. 복음 사역의 제2장을 여는 김성관 목사님과 충헌의 성도, 교회의 사랑과 속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순교자 군병들이 될 것을 소원하며 교회와 교역자와 나 자신에 대한 작은 바람을 적어본다.

충헌교회는 하나님이나 주권인신 교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위한 전리의 말씀이 늘 흐르는 교회, 교파와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전리의 말씀이 기운인 교회임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 문화를 주도하며 철저히 복종하고 섬기는 교회로 내적으로서 인본주의 치여가 없이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각 성도의 달란트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 외적으로는 지역사, 민족, 세계에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였으면 한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영적 지도자와 십자가의 도에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겠다.



용감 밑에는 졸병이 없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는 영적으로 바른 성도들이 양육되어진다. 따라서 충현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며 '나의 믿음생활'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생활'을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교회와 열매는 그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진다. 즉 나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신실하게 담겨질 때 비로소 '충현의 성도 =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이며 충현교회의 제2장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장이 되었으면 한다.

시대를 밝히는 구도자 되시길

김동욱

(집사, 고등부 교사)

종교 강제로 놀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부흥은 곧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교회들이 '충동된 전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갖가지 프로그램과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를 벌여 왔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거의가 영성보다는 양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다보니 때로 복음주의보다는 세속적인 물량주의와 효율주의가 교회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자가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다만 자본주의적 가치로서의 상업주의가 '의의 심자가'로 포장된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러한 시대에 '고난의 심자가', '의의 심자가'를 바라보며 지나가나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을 따라가자는 김성관 목사님의 간단없는 외침은 차라리 손가락질을 당해야 할 일이었으며 외로운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을 자초하며 외로운 가시밭길을 걸어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고자 하시는 위임목사이야말로 진경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 구도자의 모습일리라. 참으로 충현교회를 사랑해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충현강단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는다.



예수님이 진짜'가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이수경

(청년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젊은이들이 드리는 5부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예수님이 진짜'라는 매우 깊은 (2) 말씀을 들을 때 나는 (2) 이야기를 왜 자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예수님이 진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속의 계산에 따라 환영하고 거절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찬송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즐겁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만 순수하게, 끝까지 전하시는 목사님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김성관 목사님!

이태현

(고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1년

이란 시간이 흘렀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한 한 해였다. 1997년 8월 24일, 난 그때를 잊지 못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의 시작.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던 날이었으니까. 내 안에, 고등부 안에 참으로 많은 신앙의 발전이 있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강조하시던 목사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나 밝게 웃으며 전제시던 악수, 금요집회때 어린 아이같이 기뻐하며 부르시던 찬양... 목사님의 그 것들을 이젠 충현의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난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충현의 모든 이에게 감사함으로 남는다.

사랑해요, 김성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충현 젊은이 예배 1년

서동석

(장로, 대학부 부장)

충현교회에 젊은이들을 위해 시작된 예배(5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령층이 생각보다 두터워 무려 3800여명이나 되며 현재 젊은이 예배에 1400여명이 매주일(오후 3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충현 젊은이들의 결집된 모습 속에서 충현의 미래가 밝음을 알 수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5부 별첨찬양대가 정상 제도에 들어섰고 공파부 고등부 찬양대도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왔으며, 순수 자체 요원들로 구성된 헌금위원회의 열심있는 태도와 향상된 질서와 임직원들의 안내하는 모습은 기쁨을 더해 준다.

어느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들뜨거나, 흥분하거나 요란을 떨지 아니하는데도 충현의 스타일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5부예배에 참석해 보면 묘관(備飯)을 보는 것 같다. 이들이 어떠한 묘목으로 자랄까 궁금하기도 하다.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 있다면 문제다. 항상 오늘날도 내일이 나는 발전적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제도는 전설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며 무리한 개혁과 발전을 지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충현의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는 부정적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이어야 하고 비판을 할 때는 건설적이지 못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교회 문화와 사회 문화에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3800여명의 충현의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되고 한 덩어리되어 비판받아 평계하며 반대를 위한 비판을 끝내고 함께 합류하여 공동체 의식 속에서 충현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기를 희망한다.

97년 8월에 시작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참석을 미루거나 방관하였던 충현의 젊은이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내게 충현의 젊은이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한 번 지나간 젊음은 다시는 갖지 못하므로 소중하다. 소중한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값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신앙을 전수하여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잃었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1 주년 맞은 5부예배

내 젊음의 트랙

삼복의 햇님이 품안은 내 젊음의 트랙 활활 타는 마음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은총 하느님의 자녀로 사명으로 감싸싸여 주시리 하는 사랑으로 사명으로 감싸싸여 주시리

젊은이를 위한 예배 좋아 찾아 나왔어요니 예수 따라 푸른 초장에 나들 함께 살며 거들거들 태어나는 그대를 하는 영광 보리라

예수 십자가 올무짓는 그 외침과 보라와 보라

예수 그 이름으로 채워지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 이름으로 피어오르는 찬양의 향기

예수 그 이름으로 한 몸 불사르는 젊음의 기도

말씀의 동산에서 오 주님 불참아 일으키소서 나들

높푸르고 넓푸른 하늘 집무는 바다처럼

늘푸르게 사는 젊음 예수님을 따라간다

노벨을 보신다는 젊은이들만아 기다리라

뜨겁게 시원하게 복음의 열매 나타나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생명의 소리

땅끝까지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사제들들 준비하리라 빛이 되리라

는 푸른 십자가 높이 든 그 젊은 기상이여

변류관 친히 세워 주신 그 날을 기다리며

밝아오는 이십일세기 오대양 육대주 세계를 향해

복음의 꽃을 피워라 복음의 나팔을 불아라
오직 예수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하사리라

김윤실 집사 · 중등 2부 교사

절과 꽃이 흐르는 또 하나의 가나안

염정섭 (몽골 단기선교부)



7월 28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우리들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 하랄호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값진 선물들을 들고 뛰어 가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 8시간의 긴 여정 중간 중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수스트 이트게레"(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다. 몽골에는 예수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에게서 서울에서 성구를 인쇄하여 준비, 해간 수건을 나눠 주었다. 인쇄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 차마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다음날 하랄호를 광산역을 방문하고 주변 빈민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사역을 할 때 육적인 힘빰을 몸이나 영적으로 감금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했다. 몽골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노방 전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폐쇄된 공간에서의 활동은 제재받지 않는다. 그래서 큰 켈을 하나 빌려 우리 숙소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를 시작할 때쯤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사람의 온기가 친밀감있게 느껴질 만큼 온기 품기 모여 앉아 찬양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들과 우리는 사투른 몽골어와 눈빛으로 친구가 되었다.

다음 사역지인 아르바이헤르르 떠나는 발길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였다. 사랑의 화살에 맞아 본 자만이 사랑의 힘을 알듯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있었다. 길도 없는 길을 가면서 두렵지 않았다. 그저 주님의 예비하심이 기대될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갑자기 쏟아진 비로 길어진 개천 바로 앞에서 버스가 빠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한 번도 아닌 내뻘썩이 아내가 그 도망이 되었다. 그 와중에 진흙바닥 위로 자갈과 흙을 파내려는 우리들 겹으로 조그마한 새가 날아들듯 몽골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 들기 시작했다.

땀뻘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걸 위에 앉아 이름도 묻고 사방도 주면서 아이들과 친해져 말씀을 전했다. 언젠가 친한 성경 구절을 읽고도 찬양을 가락하고 해이처럼 그 아이가 말을 타고 옆집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밧발이 끊어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안에서 속성 여름성경학교를 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조카만 손이 올라오는 보았다. 황량한 벌판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던 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스"라는 이름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날밤 결국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한 안에서 자면서 이름 모를 그곳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역지임을 깨달았다.

다음날 떠나 가는 버스의 도망으로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 있었고 아르바이헤르르 아닌 울란바토르로 방향을 바꿨다. 먼적은 남한의 16배이지만 인구는 8분의 1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였다. 어디를 가도 말보다 사람이 많다. 힘들었다. 또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도 보통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다. 긴 여정 중 우리는 목사의 인도하심으로 버스 안에서 충헌 성도들과 같은 시간에 금요집회를 했다. 서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읽기 하나로

◀ 하랄호를의 군정회관에서 모인 빈민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서 신앙생활하던 현지인의 기증을 방문하여 가진 전도교회.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울란바토르에서 우리는 네 팀으로 나뉘어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 나오고 있는 몽골인 다와서 가정을 방문했고 그날 저녁 가족들을 초청해 다와서에서 집회를 가졌다. 충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는 소련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도왔다. 그런데 그날 따라 무척 긴장한 그가 당황해 할 때 어디선가 강호의이라는 몽골인이 나타나 부엌을 대신했는데 그의 통역은 필장히 유창하며 제스처이며 지도 훌륭했다. 세심한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주일에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 팀으로 나누어 노방전도를 나섰다. 법적으로 금지된 일기에 더욱 기도하며 걸 워로 나섰다. 공원, 의사당, 학교, 병원, 백화점, 버스 정류장, 빈민촌 등을 다니면서 일대일 전도를 할 때 떨리는 마음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 떨림은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향한 열렘이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다 알아들을 수도 다 말할 수도 없었지만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나와 그들을 하나의 지체로 만들었음을 느꼈다. 십자가를 교회할 위에 세우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들이 교회가 있어 있다는 것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저 뒤돌아서며 기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단락가옥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30세 미만인 전 인구의 80%에 달하는 젊은이의 땅 몽골! 그러나 미진도종족의 하나인 땅, 티벳 라마 불교를 섬기는 이들, 성경 번역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겨우저 만한 작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다. 주님의 약속하신 땅 앞에서 두려움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언덕과 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분명해 보였다. 그곳이 주님의 약속과 동일하게 꽃과 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주님이 허락한 그 땅은 훌륭했고 주시겠노라고 약속한 이상 믿어질 만한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었다. 지금도 약속은 동일하다. 니몽동자, 빌골, 빗, 돌, 물, 버기, 치기, 디스마, 치지크, 보틀로 등 몽골에서만 있던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의 불길은 꺼뜨리지 않겠다던 언젠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을 이세는 믿는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내는 자의 사역에 동참한 충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친다.

외국인근로자사역부

여름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다

외국인근로자사역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8월 6일-8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치러진 이 수련회에는 외국인 근로자 70명, 교사 및 봉사자 52명 등 총 122명이 참가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인'(주제 성경: 마태복음 6장 33, 34절, 강사: 이승수 선교위원회 지도 목사)이라는 주제 하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교회 출석이 미진하던 외국인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10명이 새롭게 전도되는 결실도 맺었다. 이번 수련회 행사 사진은 선교관 지하1층으로 가는 통로에서 전신되고 있다.

이 땅의 이방인들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 부서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심방: 서울은 물론 경기도 광주와 수지, 백암, 이천 등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들을 주중에 찾아보고, 성경공부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개인차가 없더라도 운전할 줄 아는 것이 수월합니다.

차량운전: 매주일 아침 경기도 일대(광주, 수지, 의정부 등)에 출근하는 외국인들을 방문해 데려오고 주일예배 후 데려다 주는 일을 합니다. 숙소에서 교회까지 오래면 한 두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공휴일도 오전 30일정에서 한 주 내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은 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방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어를 할 줄 알면 유용하겠지만 필수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방: 집마다 사용되는 각종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줄 아는 분, 컴퓨터를 사용해 서식을 만들 줄 아는 분, 비디오나 스틸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분, 기타 교회 생활의 경험에 풍부해 조언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분 등이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 매주일 12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식사가 배급됩니다. 매주교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고 배식을 해 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적은 매수 급하게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찬양: 기타, 키보드, 피아노, 태블린, 색소폰 등 악기를 다룰 수 있거나 찬양, 율동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통역: 현재 주일 9시 집회때에 스리랑카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말씀이 동시통역돼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로도 동시통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부서의 자체 역량은 너무 부족합니다. 상기 7개 국어로 동시통역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모집 시기 및 신청 방법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위원회를 방문하시기나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선교관 406호, 전화 552-8200 교한 356-8). 주일이 가장 좋고 주중에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지혜 속 소식

지혜 속 소식

영아부
학부모 초청 좌담회

오늘 1, 2주에 배 후 한영준 전도사 사회로 전의사 함이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영아부 아기 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혜경 통신)

영아부

이웃 사랑 아는 아이들부터 사랑하겠어요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 입으신 교우들을 위해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힘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유아부는 오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임마가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한 주일 동안 TV에서 피해 상황이 나올 때 아이들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장난감 사주고 싶을 때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참으면서 뜻깊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처럼 생각이 깊은 아이들로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임미순 통신)

영년부

연구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유년부에서는 연구수업이 있어요. 4과 소속의 2학년 5반 1명자 선생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명자 선생님은 아벤탈관당에서 봉사하시며 찬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한 성경공부로 말씀을 받는 어린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장지훈 통신)

중등2부

설교 말씀 중에 만나는 하나님

9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중등2부 은 가족은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감격했던 제자들이 되어 바닷가에 서 있었다. 목사님과 함께 설교 중에 '내가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고백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였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외쳤으리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등2부 은 가족의 마음의 귀가 말씀을 통하여 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교시간 내내 우리를 환하게 비추 주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성애 통신)

15교구

모두 다 한 마음

은 쓸 거들도 없이 밀려닥친 노도와 같은 홍탕물에 할 말을 잃은 수재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여 안타까웠으니, 먹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미약한 마음이었다. 14 일 고인들과 함께 수재민들을 돕고 난 후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나는 마음들이 이렇게 한결 같았음을 알았다. 하루 봉사로 부담이 덜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 체험 후의 기쁨은 더욱 진실해져갔기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진실로 땅과 수고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었다. (현숙영 통신)

유년부 교사특강

전도의 실제와 방향성 - 영혼을 낚는 어부들

전도 및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8월 16일 유년부에서는 실질적인 전도의 체험과 그 과정, 그리고 나아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사특강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학동, 논현초등학교에서 전도로 수고하시는 두 분 선생님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체험담을 경청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동초등학교 전도팀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 세함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에 임한다고 하셨다. 함께 체험하고 평가하는 동역자들을 확보하고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임생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전파 및 심방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일도 잊지 못할 것을 당부 하셨다. 직접 경험한 아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여 반영되는 '전도의 도구'임을 보여 주셨다.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을까? 우리가 주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골 1:28),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갈 2:20) 살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에 꾸준한 관심과 수고를 이루시는 작은 전도자들을 위해 할 일은 기쁘고인 것이다. (김현주 통신)

논현초전도 지역

- 귀여이교회 전도집회를 마치고 -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보내셨듯이

신은 자
(귀여이교회 성도)

어디서 왔을까. 충현교회라고 날씨는 덥고 분위기는 서먹서먹하다. 왜 왔을까? 남종면 귀여리. 도시의 소음이 호수에 씻겨 사라지는 나뭇잎까지 그들은 왜 왔을까? 나조차 스며들 듯 들어나 사는 전통과 교인과 배타적인 습성이 가득한 땅에 와서 찬양하고 전도한다고?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그들은 그들의 울타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귀여이교회의 최오영 목사님과 이 땅에 뿌리를 둔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종면. 새로운 성도들이 몇 명 나올 것이다. 이 거대한 아짐으로 쌀밭은 동네가 불붙기 시작한 건 하나님이 아시겠고, 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이 어느 50년 전에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이 50의 교회는 요즈음 세상이 난다. 최 목사님께서 지난 5년간 닦아 놓으신 기도와 봉사로 전도의 일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이변에 이리 좋은 전도 집회가 불을 붙였다. 어리고 성을 함식시킨 이야기처럼 이곳에도 조선시대처럼 권고하던 아짐과 교회를 향한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곳은 IMF를 맞아 위축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남종면에서 젊은 영혼 후계자들이 가장 많은 귀여이이다. 그들을 교회에 안아야 한다.

지금 작고 허물어가는 이 교회를 헐고 미지 않아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불의 지역 주민들을 끌어내고, 도시의 교회들과 서로 연대하여 서로의 좋은 점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정신적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야 한다. 특히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공기를 찾아 오셨다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교회 부설의 복지 시설도 건립하여 복음 전파와 치료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꿈이 많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충현교회 제7교구 식구들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갔다. 그리고 귀여리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만 남았다. 고맙게도 그들은 동네 곳곳에서 저저서 불태우고 갔다. 그 가져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남은 우리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보내셨듯이 우리 미약한 성도를 또한 하나님 손에 들려서 각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는다.

충현교회 제7교구 김병태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많은 내내 여름에 다시 온다는 믿음이기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축복을 주시는 지 내면 어떤 강종 등을 가득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이다. 마지막 날 집사님 한 분이 내게 말했다. '어디서 또 만날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공경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정말로 만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글쓴 신은자 자매는 7교구 논현초전도대의 사역자였던 경기도 파주 귀여이교회 성도이다. 신인민이 전회자가인 자매는 97년 가을 가족들과 함께 귀여리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다. 전도집회로 포박되고 참작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손수 만든 케이크로 대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게 했다.)

설임전도회의 여름수련회 및 농어촌 전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

김규석
(집사, 설임전도회)

사

을 하는 일은 아마도 대부분 '불쌍'한 단어 두 개는 아마도 대부분 '불쌍'과 '부족'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삼척 대진교회에서 열린 설임전도회의 여름수련회 및 농어촌 전도 활동은 세상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호랑과 풍성한 마음을 구가한 전지였다 할 수 있다. 이번 여름수련회가 열린 대진교회는 지난해 설임전도회가 건축해 헌당한 교회이다. 올해 이곳에서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 이곳 주민들을 집중 전도할수록 주변 마을을 복음화하여 예배당을 새로 부흥하게 한다는 우리의 목표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부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다. 당초 버스 2대에 80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신청자가 140명에 육박해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90명으로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다. 둘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배편 저녁식사 현장 식사 풍성한 식사에서 열린 감동의 시간이었다. 시골 잔치집에 제치도 잡고, 통닭만 80여마리를 요리해 주민 100여명과 우리 회원 90명이 한데 어우러져 담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모두 예배당으로 들어가 대진 마을의 주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시작했다. 주민들과 회합을 위한 '할렐루야 대진! 믿음의 사랑의 아침!'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고 김준원 장로의 인도에 따라기도시간을 고백하고 이번이 마지막 신앙고백까지 했으니, 누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회 시간에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회원 모두는 마을사를 사모시에서 손잡고 기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사랑의 열기가 전달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통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교회 뒷산에서 드린 산상 제백기대회에서는, 내리



던 비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또 민둥이 되어서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드린 기도와 찬양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행사 기간 동안 있었던 이·미용 전도 활동은 풍성한 마음을 주민들과 보다 친해질 수 있었다. 머리 손질을 받고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 구명선 전도사가 '부부 싸움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이끌어 주신 부부 세미나 역시 부부 생활을 윤락하게 하는 삶의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지도목사인 이홍성 목사는 모든 집회의 설교를 맡아 우리들과 주민들의 열성적 감응에 큰 힘을 그어 주셨고, 또한 굳은 날씨 속에서 두 회원들의 식사를 준비해 준 봉사팀의 노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와 있었기에, 이번 여름수련회 및 농어촌 전도 활동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 같은 것이 풍성한 '호랑 증의 화향'으로 끝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회소식

알림

1. 수제민들구 특별헌금 / 오늘 1,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2. 장학헌금 안내 / 30일(다을 주일) 1,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영아예배 10년전 기념예배 및 사진전시회 / 오늘 오전 8시 40분 복지관 가나후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30일까지 갈릴리움 복도에서 사진전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4. 6교구 놀이예배 / 24일(월)~26일(수), 신원교회(안경자 목사), 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원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5. 시청각실 초등학교를 교육자료 수집 / 시청각실에서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책과 성서가 관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수집합니다.
 - 수집: 새창 209호(주일 10:00~16:00)
6. '히브리자 길의' 배부 / '98정지하문서 강의를 조지 풀러 교수의 강의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히브리자강의)'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교회일꾼은 교육과정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2. 교인지도 월례회 / 28일(금) 17:30, 매추라기홀
3. 평정위원회 월례회 / 29일(토) 13:00, 가평현강(11:00 교회소발)
4. 2교구 총회기도회 / 25일(화) 18:30, 만나홀(대상: 2교구 성도 전체)
5. 정로 화요새벽기도회 / 25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6.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4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7. 주일오장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당부 예배실
8. 설립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7일(목) 새벽기도 후, 설립인전도회실
9. 복지재단 이사회 회의 / 오늘 15:00, 사무국
10. 중공 소위원회 회의 / 오늘 16:00, 사무국
11. 관사회 제4회 월례회 / 26일(수) 1부예배 후, 사무부실

나눔전도회

1. 바 울 8 / 29일(토) 18:30, 박준근 집사역
2. 바 울11 / 오늘 구교모임 후, 영아부실
3. 바 울17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교육관 307호)
4. 베드로 1 / 25일(화) 19:30, 교육관 109호
5. 베드로 3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6. 베드로 5 / 29일(토) 19:30, 노아식당
7. 베드로 7 / 27일(목) 19:30, 서라발가든
8. 베드로 10 / 오늘 15:00, 교육관 411호

9. 베드로11 / 오늘 구교모임 후, 영아부실
10. 베드로15 / 29일(토) 19:00, 청기와식당(봉천사거리)
11. 베드로17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교육관 307호)
12. 요 한 4 / 29일(토) 19:00, 교육관 205호(유지부실)
13. 요 한 6 / 오늘 12:10, 만나홀(피아노 쪽)
14. 요 한14 / 오늘 10:00, 교육관 206호
15. 루디아 4 / 27일(화) 11:30, 영아부실
16. 마리아 7 / 25일(화) 10:30, 갈릴리움
17. 마리아 7 / 25일(화) 10:30, 유아부실
18. 마리아 8 / 25일(화) 11:00, 유요복 집사역(444-4285)
19. 마리아 9 / 25일(화) 11:00, 김윤숙 집사역(973-2440)
20. 마리아12 / 오늘 부부예배 후, 갈릴리움
21. 마리아16 / 25일(화) 10:30, 열약기원 전장
22. 마리아17 / 25일(화) 10:30, 분당중앙공원

별세

1. 임계순 성도(마운전 집사 시모, 제3교구 은마5구역) / 18일 별세, 29일 장례

영양(바디오) · 사무 직원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세례를 받은 PC사용 가능한 남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지
 - ① 영남성 1명(26세 미만)
 - 전자: 전기 계통의 이사와
 - 화형과 권검의 경험자
 - ② 사무직 1명(30세미만)
3. 제출서류
 - ① 자필입력서(사진포함)
 - ② 주민등록본
 - ③ 자기소개서
 - ④ 참고인은 당회장 추천서
- * 기타: 서류를 세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 충현교회 사무국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52-8200(교관 402면)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1365	이상진	1	청년2부	이은혜(2)	1373	이경희	4	마리아		1381	박소현	1	고등부	
1366	박종신	1	청년2부		1374	조성학	11	청년2부	박윤석(8)	1382	최효주	6	청년2부	
1367	안정민	2	청년2부		1375	김순옥	11	청년2부	박윤석(8)	1383	공현정	9	청년2부	김정연(9)
1368	이명주	6	예배다부		1376	강상남	16	청년2부	김종녀(16)	1384	지희영	9	청년2부	김정연(9)
1369	송영심	6	예배다부		1377	손영주	19	청년1부	배은경(17)	1385	구현진	19	대학부	
1370	윤재남	8	소망부		1378	최지나	19	청년1부	강준성(10)	1386	윤양수	4	대학부	윤종철(4)
1371	정재도	9	바울	박윤석(8)	1379	이상희	1	루디아		1387	김순례	13	청년2부	이보희(13)
1372	박인호	10	청년2부	이미리(5)	1380	박소정	1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음

십자가 나의 구원

문 하 숙(집사, 16교구)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깨달았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껏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던 것들이 죄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보시기를 살피고자 간음죄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은 그러한 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모든 언행과 생각에 울무가 되어 나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오늘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했지만 저녁마다 어김없이 침잠한 마음으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2년이 차도록 이런 싸움이 계속 되면서 곧 감각 속에 시작했던 신앙생활은 어느덧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온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 어느날 그 중에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머리에 밧줄과 끈을 온통 묶어 두어 뒤집어쓰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처참한 모습을 나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그후 소모적으로 저 소망스런 천국에 걸단코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깨달음이 하루종일 울고 또 울었다.

그날밤 막막한 중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요한복음에 읽고 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되 두려워 하라니 ..." 3장 14절에 이르렀을 때 순간 가슴 속에 섬광처럼 빛이 밝혀졌

을 느꼈다. 십자가 실패를 들 때마다 긴장하며 찾기를 고대했으면서도 번번히 놓치고 말았던 그 비밀이 이제 그 비밀을 벗고 찬란한 빛을 비추 주고 있었다. 불뿔에 불려 죽어가던 죄인들이 오직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구리뿔처럼 죄인들을 위해 놓이 달린신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삶을 살려 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뭇 사자로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부여 받은 믿음의 순간이었다. 수없이 나를 정죄하고 괴롭혔던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풀려나던 구원의 순간이었다. 이처럼 사랑한 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의 구주 앞에 의뢰하니 나는 은혜의 순간이었다.

금주의기도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원로목사께서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사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영광으로 찬양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⑥ 나라가 어려움에 이대해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이룬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라.
- ⑦ 복자 재단과 수혜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원로목사

김창민

원로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준호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8월 30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임파루엘찬대

(찬양곡목)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3부예배

할렐루야찬대

(찬양곡목)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이제는 아무 중개 없이(이로디안 3:44)

4부예배

이연찬찬대

(찬양곡목)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5부예배

이연찬찬대

(찬양곡목)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

이연찬찬대